

잡아함63. 분별경 ③

날짜: 2월 6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61>

63. 분별경 ③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5수음이 있으니 이른바 색수음 · 수수음 · 상수음 · 행수음 · 식수음이다. 비구들아, 만일 사문 바라문이 ‘나가 있다’고 헤아린다면 그것은 다 이 5수음에 나가 있다고 헤아리는 것이다.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 여러 사문 바라문은 색에 대해서 ‘이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이와 같이 수 · 상 · 행 · 식에 대해 ‘이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 이와 같이 어리석고 법문을 듣지 못한 범부들은 나[我]를 헤아려 무명으로써 분별하고, 이렇게 관찰하여 내 것[我所]이라는 생각을 떠나지 못한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떠나지 못하면 모든 감각기관[六根]에 들어가고, 모든 감각기관에 들어간 뒤에는 접촉[觸]이 생겨 6촉입처에 부딪친다. 그러면 어리석고 법문을 듣지 못한 범부들은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을 내느니라. 이른바 6촉신(觸身)이란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이른바 안촉입처(眼觸入處) · 이촉입처(耳觸入處) · 비촉입처(鼻觸入

處) · 설촉입처(舌觸入處) · 신촉입처(身觸入處) · 의촉입처(意觸入處)이니라.

비구들아, 의계(意界) · 법계(法界) · 무명계(無明界)가 있다. 무명의 접촉[無明觸]에 부딪쳐 어리석고 법문을 듣지 못한 범부들은 ‘있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하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하며, ‘내가 가장 훌륭하구나’고 말하고, ‘나는 그와 비슷하다’고 말하며, ‘나는 알고 나는 본다’라고 하느니라.

그러나 비구들아,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6촉입처(觸入處)에 머무르면서도 능히 무명을 싫어해 떠나 지혜를 발현할 수 있다. 그는 무명에서 탐욕을 떠나 지혜를 내기 때문에 ‘있다’고 하지도 않고, ‘없다’고 하지도 않으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고 하지도 않으며, ‘나는 훌륭하구나’고 하지도 않고, ‘내가 못하다’고 하지도 않고, ‘나는 그와 같다’고 하지도 않으며, ‘나는 알고 나는 본다’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나면 앞에 일어난 무명의 접촉은 소멸하고 뒤의 지혜의 접촉이 모여 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밟들어 행하였다.

[jiwol 잡아함경 다시 읽기](#)